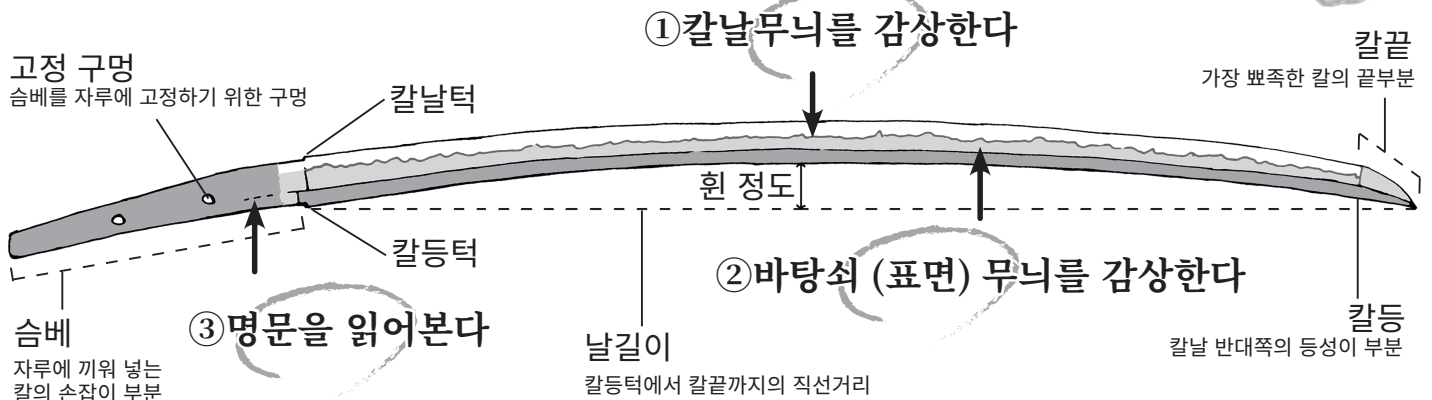




① 칼날무늬[하문] (흰 부분)

담금질 기법에 의해 생기는 칼날 흰 부분의 선무늬로,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칼날무늬는 도검의 대표적 감상 포인트로, 만든이나 유파가 누구인지를 파악할 때 판단의 근거가 되는 요소입니다.

직선무늬[스구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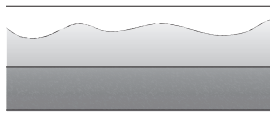
담금질에 의해 칼날에 생기는 직선무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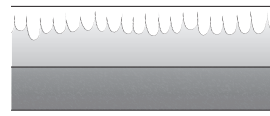
완전한 직선무늬 칼날은 거의 없으며, 약간의 굴곡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곡선무늬[미다레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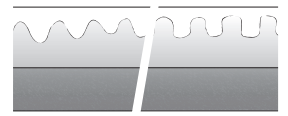
담금질에 의해 칼날에 생기는 곡선무늬



파도무늬[노타레] 넓고 완만하게 치는 파도 같은 무늬. 사이사이에 정향꽃무늬나 돌기무늬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정향꽃봉오리무늬[조지] 작은 U자형 곡선이 연속하여 나타난 무늬. 정향꽃의 봉오리를 닮아 이름 붙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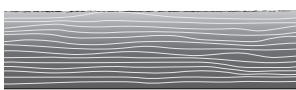


돌기무늬[구노메] 반원 혹은 산 모양의 돌기가 엇갈리며 반복하는 무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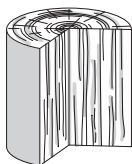
② 바탕쇠(표면) 무늬 (검은 부분)

철을 접어서 두들기는 단련과 담금질 과정을 거치면서 칼 바탕쇠 표면의 검은 부분에 무늬가 생깁니다. 나뭇결을 닮아서 목재 용어를 빌려 씁니다. 제작 시대와 지역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 도검 감상의 한 기준입니다.

곧은결무늬[마사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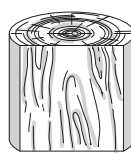
직선에 가까운, 나란한 선 무늬이다.



넒결무늬[이타메]



불규칙한 무늬로, 가장 많다.



무늬결무늬[모쿠메]



동심원의 둥근 무늬이다.



③ 스베에 새기는 명문(銘)

스베 부분에 새긴 기록(만든이, 소유자, 칼의 가치를 증명하는 감정가의 이름이나 제작연도 등)를 명문(銘)이라고 합니다. 스베는 칼자루에 끼어 들어가는 부분이므로 실제 자루에 끼워서 쓸 때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명문은 도검 감상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명문 예시 : 전시 번호 160 교토국립박물관 소장 중요문화재 < 다치 > 의 명문

‘아와타구치 잇칸시 다다쓰나 (만들) / 장식무늬도 같은 사람이 새김 (栗田一竿子忠綱 彫同作)’

‘호에이 6년 8월 길일 (宝永六年八月吉日)’

귀띃 지식: 칼을 줄일 때는 어디를 자를까?

시대와 용도가 달라지면서 칼을 짧게 변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칼의 어느 쪽을 자를까요? 칼끝이 아니라, 손잡이에 끼어 들어가는 부분, 즉 ‘스베’를 잘라냅니다. 이를 ‘스리아게 (磨上げ)’라고 합니다. 길이가 긴 다치를 조금 더 짧은 가타나로 고칠 때 자르는 경우가 많으며, 명문이 완전히 없어질 정도로 바짝 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줄어든 칼의 스베에는 이미 있던 명문 뒤에 이어서 명문을 새기거나, 새로 새겨서 누가 칼을 줄였는지를 기록합니다. 스베를 잘라낸 칼은 아무래도 원래 칼보다는 전체적 균형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도검의 분류

다치(太刀)	칼집에 달린 금속 장식에 끈을 끼워 허리띠에 매달아 차는 큰 칼. 둥근 칼날이 밑을 향한다. 말을 타는 기마전에서 사용되면서 발전했다.
가타나(刀)	허리띠에 직접 꽂아 찬다. 둥근 칼날이 위를 향한다. 말을 타지 않고 직접 싸우는 보병전에 대비하여 만들었다. 우치가타나(打刀)라고도 한다.
와키자시(脇差)	가타나의 보조 무기로 사용된 짧은 칼. 가타나와 마찬가지로 허리에 꽂아 찬다.
단도(短刀)	24cm 전후 길이의 짧은 칼. 허리칼(腰刀) 혹은 휴대하여 품고 다닌다는 뜻에서 심복칼(懷刀)이라고도 하며 여러 용도로 쓰인다.



다치



가타나

도검은 허리에 차는 모습을 반영해서 전시합니다. 전시실에서 칼날의 방향을 잘 보시면 **칼날이 밑을 향한 칼이 다치**이며, 그 반대로 **칼날이 위를 향해 있는 칼은 가타나·와키자시·단도** 등입니다. 그리고 칼을 찾을 때 몸과 마주한 쪽이 칼의 뒷면, 바깥쪽이 칼의 앞면입니다. 명문은 대개 바깥쪽인 앞면에 새겼습니다.
또한, 전시실 속 여러 회화 작품에 등장하는 무사들은 각각 어떤 도검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칼의 방향을 살펴보고 감상을 시작해 봅시다.

도검에 붙는 별명

도검에는 애칭으로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명물[名物]이나 호[號]로 표시). 도검의 별명은 유명한 일화, 칼의 무늬나 형태, 유명한 소유자에서 따오는 경우가 많으며, 별명 뒤에는 도검을 만든 장인 이름을 명문으로 새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화에서 유래

별명 가센 가네사다 (號 歌仙兼定)

이 칼을 지녔던 호소카와 다다오키(細川忠興)는 부젠노쿠니 고쿠라번(지금의 규슈 북부)의 제1대 번주였다. ‘가센’이라는 별명은 다다오키가 이 칼로 측근 36명을 베었다는 전설과 함께, 와카 시인 36명을 일컫는 ‘36가센(三十六歌仙)’에서 따왔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전설적 일화는 역사적 기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무늬나 형태에서 유래

별명 미카즈키 무네치카 (名物 三日月宗近, 칼날에 초승달 무늬)

칼날에 초승달 무늬가 여럿 보여, 빛을 비추면 마치 달이 떠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서 유래한다.

별명 나마즈오 도시로 (名物 鯰尾藤四郎, 메기 꼬리를 닮은 칼)

칼끝이 메기 꼬리처럼 부푼 모습을 한 것에서 유래한다.

소유자 이름에서 유래

별명 마에다 도시로 (名物 前田藤四郎)

마에다 도시마사(前田利政)가 지니고 있던 칼로 마에다 집안에 대대로 내려온 것에서 유래한다.

별명 아카시 구니유키 (號 明石國行)

아카시번 마쓰다이라 집안(明石松平家)에 전해 내려온 것에서 유래한다.

특별전 <교토의 도검>에서 자주 쓰는 용어	
야마시로 모노【山城物】	교토와 그 주변 지역을 일컫는 야마시로 지역에서 만든 도검. 교토에서는 헤이안시대 후반부터 현대까지 도검을 제작했다.
고도검【古刀】	모모야마시대의 게이초(慶長) 무렵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 만들어진 도검을 옛 도검이라는 의미로 ‘고도검’이라 한다. 고도검의 종류에는 큰 칼인 다치, 그 이후 다치를 대신하여 주역이 된 (우치)가타나, 휴대용 허리칼로 사용된 단도 등이 있다.
신도검【新刀】	게이초(慶長) 이후에 만들어진 도검을 아울러 ‘신도검’이라고 부른다. ‘고도검’에 대응하는 말. 이 시기에 우메타다파, 호리카와파, 미시나파 등의 도검 장인 그룹이 활약했다.
야마시로 대장장이 그룹[山城 鍛冶]	
산조파【三条派】	헤이안시대 후기에 교토 산조도리에 거주했던 대장장이 그룹. 그들이 거주했던 지역 이름을 따서 산조파라고 부르며, 산조 무네치카(三条宗近)를 시조로 삼는다.
아와타구치파【粟田口派】	가마쿠라시대에 교토 아와타구치(지금의 교토시 히가시야마구·사쿄구) 지역에 거주하던 도검 장인 일파. 그 가운데에서도 요시미쓰(吉光)는 명도검을 많이 제작하여, 그의 작품은 대표적 도검집 『교호 명물집』에 많이 실렸다.
라이파【來派】	가마쿠라시대 중기에서 남북조시대 전기 사이에 교토 야마시로노쿠니(山城國) 지역에서 활약한 도검 장인 집단이다.
하세베파【長谷部派】	남북조시대의 구니시게(國重)·구니노부(國信)를 중심으로 한 장인 집단. 야마토(지금의 나라) 출신으로 가마쿠라(鎌倉, 지금의 가나가와)로 가서 가마쿠라의 도검 제작법을 배운 후, 교토로 이주했다.
우메타다파【埋忠派】	우메타다 일족은 날뿔(鑢, 쓰바)과 도검 장식의 제작, 도검 가공 등에 종사한 일족으로, 우메타다파는 금속공예(彫金)의 유파로도 알려져 있다. 모모야마시대의 명장 우메타다 묘주(埋忠明壽) 때에는 교토의 니시진(西陣) 지역에 거주했다.
호리카와파【堀川派】	근세 초, 교토의 호리카와 이치조 지역에서 활약한 도검 장인 집단. 호리카와 구니히로(堀川國廣)를 시조로 삼는다.